내란 심판에도…'진보 텃밭' 광주에 보수표심 있었네

봉선2동 김문수 득표율 13.30%…5투표소는 25.97%까지

20대 많은 대학가 지역·아파트 부촌 국힘 지지율 두자릿수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광주는 전국 투표율 1위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 2위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 텃밭임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봉선 2동, 충장동, 학운동 등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12~13%대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전체 평균 김 후보 득표율(8.02%)보다 5%p가량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봉선2동의 김 후보의 득표율은 13.30%에 달했다.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21.87%)보다 8.49%p 떨어진 수치지만, 이번 대선에서 광주지역 동별 득표결과를 보면 여전히 광주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이번 대선에서 광주에서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84.77%(84만4682표)로 1위를 기록하고, 김문수 후보 8.02%(7만 9937표), 이준석 후보 6.23%(6만 2104표), 권영국 후보 0.87%(8767표) 순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김 후보 득표율은 동구가 9.6%로 가장 높고 서구(8.42%), 남구(8.31%), 북구(7.78%), 광산구(7.38%)가 뒤를 이었다.

동구에서는 김 후보가 지산2동에서 13.35%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 지산1동(12.98%), 충장동(12.43%), 학운동(12.16%), 학동(11.82%), 서남동(10.84%), 동명동(10.76%), 산수2동(10.29%), 계림2동(10.25%), 계림1동(10.0%)에서 10% 이상 득표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조선대와 충장로가 위치한 광주 동구에서는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선거비 보전 득표율인 15%를 획득한 것이 이번 대선에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20~30의 광주지역 청년들의 보수 지지성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구에서는 중흥동(10.47%), 용봉동(10.3%)에서 국민의힘이 10%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흥동과 용봉동은 전남대 학생들이 거주하는 원룸촌이 많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조선대병원과 전대병원의 의사들이 거주하는 지역도 겹쳐있다는 점에서 보수성향 지지가 강해 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서구에서는 광천동(10.98%), 화정1동(10.82%), 화정3동(10.26%), 농성1동(10.21%)에서도 국민의힘이 1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리는데 기여한 지역으로 평가되는 봉선 2동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득표율은 21.72%에 비해 8%p 떨어졌지만, 광주에서 가장 높았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광주의 대표적인 '아파트 부촌'으로 광주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봉선2동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간담회까지 열고 공을 들였으나 여전히 국민의힘에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38.77%가 국민의힘에 표를 줬던 봉선2동 5투표소의 경우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에게 25.97%의 득표율을 보였다. 봉선2동 4투표소에서도 국민의힘은 22.84%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전 정부의 부동산 종부세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민주당 득표가 낮았던 것으로 분석 됐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여전히 광주에서 가장 높은 보수지지를 보여 줬다는 점에서 봉선 2동의 경우 보수성향이 강한 지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4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외벽에 '광주야 날자'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다. /나명주기자mjna@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4일 광주 북구청사 외벽에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영광 민심, 이낙연에 채찍 휘둘렀다

김문수 지지율 전남 평균보다 낮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의 고향 영광에서 이 후보의 지지 선언과는 달리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전남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임고문은 21대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결국 내란세력과 야합하는 추태를 보였는데, 이 상임고문의 고향에서 김 후보가 되려 전남 평균보다 낮은 득표율을 보이면서 고향민심이 채찍을 휘둘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의 영광군 득표율은 8.3%로 전남 평균(8.54%)보다 낮았다.

이 고문의 고향마을인 법성면 용덕리(법성면 제5투표소)에서는 전체 141표 중 김문수 후보가 24표(17%)를 얻어 그나마 선전하는 듯 했지만, 법성면 전체로 보면 3296표 가운데 김 후보 득표는 266표에 그쳐 8.1% 득표율로 영광 평균보다도 낮았다.

이 고문은 김 후보와 공동정부 구성, 개헌추진 협력,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등 3개 항에 합의하고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호남 몫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지역민의 지지로 정치생활을 이어온 이 고문이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아니었다. 당장 전·현직 전남지사들이 이 고문을 규탄하고 나섰고,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고문을 '괴물'에 비유하기도 했다.

특히 고향인 영광에서는 이 고문을 비판하는 현수막 등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이 고문의 고향인 영광을 비롯해 호남에서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호남서 이름 석 자 지운다' 등의 원색적인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제4투표소, 호남 유일 김문수가 앞서

235표 중 李 108표 대 金 118표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호남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앞선 투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기는 했지만 전남 평균을 웃도는 보수 진영 득표율을 기록한 투표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고흥군 도양읍 제 4투표소에서 김문수 후보가 49.4%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후보는 이곳에서 전체 239표 가운데 118표를 획득, 108표(45.2%)를 획득한 이재명 대통령보다 10표 앞섰다. 도양읍 제 4투표소는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앞선 유일한 투표구다. 이 투표소는 국립소록도병원 환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한 곳이다. 국립소록도병원 환우들은 과거부터 보수 정당 후보자를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과거 소록도갱생원이었던 국립소록도병원은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절인 지난 1960년 국립병원이 됐고,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인 곳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보수 정당 후보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지난 대선에서도 보수 정당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체 355표 가운데 207표를 획득, 58.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이번 선거기간 중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아 주민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올해 대선에서는 지난 대선보다 보수 후보 득표율이 13.1%포인트 줄었다.

이번 선거에서 전남지역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85.87%, 김문수 후보는 8.54%로 두 후보간 격차가 77.33%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광양 1곳, 영광 1곳 등 투표소 2곳에서 김문수 후보가 전남 평균 득표율인 8.54%를 상회하는 30%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광양시 금호동 제3투표소 개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전체 527표 중 222표(42.12%)를 얻었고, 김문수 후보가 197표(37.38%)를 얻어 선전했다. 이 투표소는 광양제철 임직원들이 주로 투표에 참여했는데, 영남쪽에서 이주한 직원들이 많다는 점이 김문수 후보가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로 꼽힌다.

또 영광 홍농읍 제5투표소에서도 총 684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341표(55.70%)를 얻었고, 김문수 후보는 243표(35.52%)를 받았다. 이곳은 한빛원전이 위치한 곳으로, 외지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한편, 김문수 후보의 부인인 설난영 여사의 고향 순천에서 김 후보는 9%대를 얻는 데 그쳤다. 전남 평균보다는 많았지만 김문수 후보가 선거기간 중 자신을 '호남의 사위'라고 발언한 것이 무색하게 됐다.

순천에서 김문수 후보는 전체 19만7762표 가운데 1만7828표(9.01%)를 얻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격차는 14만7843표로 컸고 되려 5.7%(11만461표)를 얻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가까웠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